

흉선종의 외과적 치료

최 대윤, 금 동윤, 신 현종, 최 세영, 박 창권, 이 광숙, 유 영선

계명대학교 의과대학 흉부외과학교실

1979년 6월부터 1993년 2월까지 계명대학교 의과대학 흉부외과학교실에서는 총 28례에 대한 흉선종의 수술적 치료가 이루어졌다.

이중 10례(35.7%)의 환자는 종종 근무력증을 동반하고 있었으며, 그외 순수 척혈구 형성부전증(1례), 이소성 부신피질 자극 호르몬증(1례)등 동반 질환을 가진 예도 있었다.

성별 분포상 남자 13례, 여자 15례로 남녀 비는 1:1.15이었으며, 연령 분포는 최저 연령이 18세, 최고 연령이 55세로 평균 연령은 42.7세이었다.

20례의 환자에 있어서 흉골정중절개가 이루어졌으며, 7례에서는 측방개흉절개, 1례는 경부 조직생검이 이루어졌다.

22례의 환자에서는 흉선종 전적출술이 시행되었으며, 1례에서의 부분적출술과 5례에서의 조직생검이 이루어졌다.

수술병기로는 stageII가 11례(39.3%)로 가장 많았으며, stageI이 8례(28.6%), stageIII가 7례(25%), stageIV가 2례(7.1%)이었다.

조직학적 소견상, 상피세포형이 14례(50%), 임파구형이 3례(10.7%), 혼합형 5례(17.9%) 방추세포형이 4례(14.3), 정확한 조직형을 알수 없었던 예도 2례 있었다.

10례에 있어서 수술후 합병증이 발생하였으며, 2례에서 사망하였다.

수술후 방사선 치료나 화학약물 치료를 받은 예는 15례(53.6%)있었으며, 약물 치료를 단독으로 받은 예는 없었다.